

어이할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1-6)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전술과 전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에게는 쉼의 시간을 주시어 베네수엘라와 쿠바선교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기록 할 시간을 주십니다. 드디어 82 세로 노인이다. 아니야! 이제 100 세 시대다. 아~ 아직도 18 년이나 남았구나. 100 세까지는... 할렐루야!

베네수엘라 소식



22MillionBolivars/US1Dollar 새화폐 20 만=\$1 화폐는 종이 조각 아푸레주에 FARC 출현

전통적인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2000 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마두로의 반미주의로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변했다.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환율은 곤두박질치고 화폐는 종이조각이 되었고 아부레주에서는 게릴라가 출현하였다. 은퇴자들의 사회보장금 (INSS)은 월 \$700 (2000 년 전)에서 현재 \$1 미화 1 볼로 하락하였다. 현 환율 Bs.2.4Million/1US\$로 미화 1 달러당 >2.4M, 2 백 40 만 보리바르다 (4 월 4 일). 휘발유 값은 \$2/L 다. 최저임금 \$1 로 구입하기 쉽지 않다. 석유매장량은 세계 1 위이지만 정유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정책 20 년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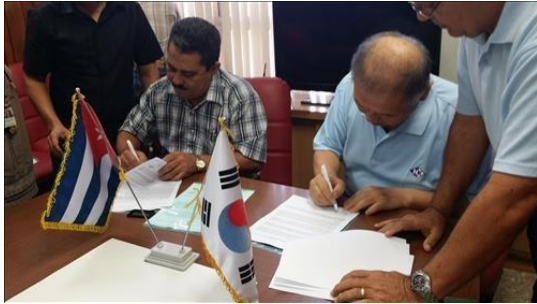
카리브복음신학원소식

할렐루야! 2021 년 봄학기에 학사과정 36 명 석사과정 36 명 특수과정 10 명 총 82 명이 등록하였다. 모든 교수는 베네수엘라 현지인으로 카리브복음신학원 졸업한자들이다. 베네수엘라 신학교는 문교부에 등록이 안 된다. 그러나 본교 졸업자들은 매릴랜드신학교 (안준식 학장) 졸업장과 영사인증 (Apostillos)으로 카리브복음 신학원의 존재가치를 더욱 더 Upgrade 하였다. Zoom 줌

## 2021 년 신축년 1-4 분기 쿠바—베네수엘라 선교소식 06-04-2021

영상강의 위하여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소유하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새로등록한 학사과정 6 명 석사과정 10 명에 스마트폰을 주어 비대면 수업을 받게한다. 카리브 복음신학원에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A&Ω)를 통해서...

### 쿠바한인후예(손)들 소식



베네수엘라 쿠마나에 수산사업을 익힌 최규성 사장이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쿠바정부와 합작회사를 설립. (협력합자외사 조인식, 최규성 사장 우편) 네네카사로 1996 년 처음이다. 컨설팅관계로 1997 년 방문하여 한인 후예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초창기 방문때 큰 도움 주며 선교지를 안내하였다.

쿠바는 의사가 넘치는 나라다. 코로나 발병자들은 그 지역 의사의 방문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의료천국이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자금이 조달되지않는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잘 운영되지않는다. 일단의 쿠바의사들이 이탈리아로 가 코로나 19 열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습득하였다.



Entrevista al Sr. Antonio Kim: la diáspora coreana en Cuba a 100 años de su llegada

24.03.2021



Por la reportera honoraria de Korea.net, Dayviana Díaz de Cuba  
22 de marzo de 2021

금년 2021 년은 쿠바한인후예들이 멕시코에서 마나띠 항구에 입항한지 100 년이되는 해다. 1921 년 3 월 25 일 마나띠에 도착하였다. 그 지역에서 한인촌을 이루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다가 국제사탕수수가격이 급락하여 마판사스 주 에네깅 농장으로 이주하여 엘보로 언덕에서 한인촌을 이루어 살다가 쿠바전역으로 흩어져 살고있으며 현재 1280 여명이 8 개지역에 6 대째 살고있다. 상해 임시 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는 애국자들이었다.

헤로니모 임은조 전 한인후예 회장의 아버지 임천택씨는 한인학교와 한인교회(감리교회)를 세워 후진들의 교육에 정열을 쏟았다. 그리하여 한인후예들 2-3 세는 의사 변호사 군장교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다. 전 회장 임은조씨는 농림부 식량국장 (차관급)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



##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서부: 아바나 284명, 마탄사스 261명, 까르데나스 291명  
 중부: 씨에고데아빌라 25명, 까마구이 141명  
 동부: 마나띠 51명, 홀긴 56명, 마르까네 73명

쿠바 수도 아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2 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2 월 1 일 (현지시간)부터 강도높은 봉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아바나 밖으로 나갈 수도, 다른 도시에서 아바나로 들어

올 수도 없게 되었다. 아울러 오후 7 시부터 이튿날 오전 5 시까지 통행금지가 적용되며, 어린이와 노인 등은 나머지 시간에도 외출할 수 없다. 쿠바한인후예들과 합의하여 동부와 서부지역에서 가정교회 목사 지도자 세미나를 계획 하였는데, 출발 몇일전 지도자들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입국시 코로나 검사로 음성판정 받아도 “7 일간 격리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교회 방문이 금지되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다른계획이 있을 것 이рода. 쿠바와 캐나다는 좋은관계를 유지하고있다. 캐나다 한인교회들이 나설 때 이다. 은혜와 평강교회 (장동철 목사) 젊은이들이 쿠바청소년들과 수련회를 갖도록 계획하였는데, 무산되었다. 1977 년 부터 쿠바한인 후예들을 찾아 25 년간 방문하고 있으나 8 개도시에 거주하는 1230 여명의 후손들에 물질적 도움주고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구제사업과 의료선교가 위주였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입으로 시인한 성도들에게 침례를 배풀어 야 한다고 굳게 다짐 하였지만 실행하기 힘들었다. 두려움과 출국당할것으로 느껴져 실행하지못하였다. “죽으면 죽어리라”는 각오로 2018—2019 년 사이에. 마르까네, 마나띠, 씨에고데아빌라, 까르데나스, 마탄사스 한인 후손들 중에서 36 명에게 침례를 배풀었다.

외국인은 집을 살수도없고 쿠바사람도 한가정당 한집만 구입이 가능하다. 독립된 가정교회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며 렌트도 쉽지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 하신다. 쿠바정부의 기독교 억압정책으로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한다. 카리브신학교 출신 독신 선교사 파송도 생각해 본다. (일부 지난달 중보)

**가족소식:** 코로나열병으로 온 가족이 모이다 (딸 원아네, 아들 석구네, 손수 5 명) 모두 11 명이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선교의 큰 후원자들이다. 함께 모이도록 기회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아들네는 곧 타이완으로 구글 근무처를 옮긴다.





코로나 열방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기회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 Petición de Oraciones 기도제목

1.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정치위기 (독재정치) 생명위기 (코로나 19) 생활위기 (억만% 인플레이션) 극복하도록. 12 월 6 일 국회의원 선거 후풍 잘 정리되도록.
2. 카리브복음신학원 케이블 TV 개설로 복음전파에 도움되고 학생들 온라인강의가 가능하여 베네수엘라 목회자양성 주축되도록.
3. 쿠바한인후손들 복음전도로 생명길 선택하고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도 굳건히 믿음생활 계속하여 천국의 기쁨을 향유하도록.
4. 쿠바입국 선교탄압 완화되고 8 개지역 1230 여명의 한인후손들 섬기는 가정교회 지도자 형제들 제자훈련 가능하도록.

### Contacto 연락처

- Venezuela 베네수엘라: Seminario Evangelico del Caribe 카리브복음신학원. Calle Niquitao #42, Cumana, Venezuela. Rev. Kyung Suk Chung 정경석 email: [kyungsukchung@yahoo.com](mailto:kyungsukchung@yahoo.com) +53 0414-773-1443, 0412-305-0190
- Cuba 쿠바 +53 55.79.32.63. [kchung@nauta.cu](mailto:kchung@nauta.cu)
- USA 미국 +1 415-712-6023 [kyungsukchung@gmail.com](mailto:kyungsukchung@gmail.com) 555 10<sup>th</sup> St. Apt. #201, Oakland, CA 94607 카톡 KSCHUNG0223 whatsapp 통화가능
- 웹: [www.seminarioevangelicodelcaribe.blogspot.com](http://www.seminarioevangelicodelcaribe.blogspot.com) 신학교 정보가능. 업그레이드 중

후기: 사람을 길러 일 하시는 하나님 섭리 회고.

나는 몰랐다. Personal Reflection 첨부.